

# 중국 개혁개방의 징후적 서사

— 《작렬지(炸裂志)》 小考

김 봉 연\*

##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국가가 주도한 도시화의 폐단
3. 공적 공간의 사적 전유
4. 도시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재사고
5. 나오는 글

## 1. 들어가는 글

역사 제재로 글을 쓴다는 것은 그것의 진면목을 밝힌다기보다 그 안에 존재하는 많은 곤혹 중 하나를 발굴하는 작업에 가깝다. 역사의 문법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연과 수치화할 수 없는 양상에 대해 말하는 서사의 문법은 과거의 결과로서 현재의 개별적 양상을 해석한다. 과거의 어떤 선택이 현재를 견인했고, 우리는 어떤 선택으로 미래의 모습을 그려나갈 것인가라는 일련의 과정이 그 속에 녹아있다. 그러나 문학이 보여주는 양상이 이 곤혹에 대한 정답이 되거나 경향성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문학은 당위를 주장하기보다는 불가피를 고뇌해야 한다”<sup>1)</sup>는 말에 기댄다면, 문학은 대면하고 있는 현실과 시대를 파고드는 작업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닌다. 문학이 들추어내는 곤혹은 현실에 대한 집요

\*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연구중점교수(bbongs@ssu.ac.kr)

1) 신형철, 《느낌의 공동체》, 문학동네, 2011, 281쪽.

함의 흔적이자 시대의 불가피함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엔렌커(閻連科)에게 문학은 이러한 곤혹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해결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인간의 일상과 감정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망에서 나오는 모든 의심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문학은 그에게 신앙과도 같다. 그는 종교가 교리로 의혹을 푸는 것처럼, 문학은 이야기로 진실에 가까워지려 하고 존재하는 의혹에 대한 하나의 갈피를 만들어낸다고 술회한다.<sup>2)</sup> 그에게 직면하고 있는 중국 현실과 지나온 시대는 진실이 감춰져 있고 풀어나야 할 의혹이 산재하다. 때문에 역사와 현실에 대한 의혹이 짙어질수록 현실과 시대를 겨냥하며 ‘개입하는 글쓰기’에 대한 강도는 높아진다. 그의 일련의 창작과정은 역사와 시대에 존재하는 의혹을 풀어내고 진실과 직면하고자 하는 부단한 자기노력에 다름 아니다. 혁명과 욕망의 문제를 신랄하게 보여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爲人民服務)》(2005), 에이즈로 초도화된 가난한 농촌을 그린 《딩씨마을의 꿈(丁莊夢)》(2006), 문혁시기 수용소의 민낯을 보여준 《사서(四書)》(2011)는 중국 당대사의 굵직하고 민감한 부분을 다루어왔다. 특히 《딩씨마을의 꿈》은 ‘꿈’이라는 서사장치를 통해 환상이 덧입혀진 현실을 빗대고 그 비극성을 배가시켰다. 《작렬지(炸裂志)》(2013)<sup>3)</sup>는 위의 소설들과 비슷한 시대를 공유하되 《딩씨마을의 꿈》이 펼쳐놓은 환상의 기법을 한층 더 끌어 올린다.

작품은 자례촌(炸裂村)이라는 농촌 마을이 직할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역사의 형태로 담고 있다. 연대기적 서술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작품에서 겨냥하고 있는 역사는 중화민국 이후의 역사, 특히 개혁개방 이후로 제한된다.<sup>4)</sup> 건국 이전의 역사는 송나라 때 바러우(耙耩) 산맥이 ‘찢어지고 갈라지면

2) 周景雷, <寫作就是對現實的回應 - 閻連科訪談錄>, 《文藝研究》, 2014年 第2期, 95쪽.

3) 閻連科, 《炸裂志》, 上海文藝出版社, 2016. 이 작품의 한국어 번역본으로 김태성 역, 《작렬지》(자음과 모음, 2016)가 있다. 본고에서 작품 인용 시, 이 한국어 번역본을 따르며 작품명과 쪽수만 표기한다.

4) 엔렌커는 이 소설이 우연성과 현실성을 결합했으며 작품의 우연성을 말할 때 시간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지만, 소설 속 이야기가 중국이 과거 30년, 곧 개혁개방 이후의 시간을 다루고 있다고 말한다. 石劍峰, <閻連科談《炸裂志》>, 《東方早報》, 2013年 9月, 29日.

서(炸裂)‘마을이 만들어졌다는 언술로 간략화된다. 작품의 대부분은 개혁개방 이후 작은 농촌 마을이었던 자례가 차례로 진(鎭), 현(縣), 시(市)가 되고 초대형 도시(직할시)가 되었다가 소멸하는 일련의 과정에 집중된다. 작가는 중국 농촌의 도시화가 농민들이 생존을 기탁하고 있었던 땅을 소실하는 과정이었고 돈과 욕망에 사로잡혀 영혼이 황폐해지는 세월이었으며, 무엇보다 기존의 인간 가치와 공동체가 모두 와해되는 시간으로 인식한다. ‘자례’는 마을 이름이지만 만 개혁개방 이후 농촌의 도시화를 갈음하는 작가의 명명이기도 하다.

문혁을 겪고 ‘현대화’라는 시대적 명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개혁개방은 사회주의 중국의 필연적 선택이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로 명명되는 지금의 중국을 만든 개혁개방은 도시화라는 양상과 맞물린다. 사회주의 중국이 성립되었던 1949년 당시 중국의 도시화율은 10.6%였고 개혁개방이 선언된 1978년에는 17.9%였다. 이 비율은 2015년 56.1%에 이르렀고,<sup>5)</sup> 2030년에는 65%를 넘을 것이며, 이때 중국은 221개의 초대형 도시와 10억 명의 도시인구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sup>6)</sup> 도시화는 비약적인 경제성장률과 함께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도농 이원 발전의 국면을 타파’한 ‘위대한 모델’이자 ‘사회주의 신농촌의 위대한 업적’, ‘중국 농민의 위대한 실천’이라는 ‘위대한 공정’은 농촌의 소실을 전제로 진행되었다. 이는 단지 농토와 농민의 숫자 감소만을 의미하지 않고 농촌이 지탱해온 근간을 뒤흔드는 경험이다. 사회적 논의들이 수치와 경향성에 대해 논할 때, 작가는 그 숫자 이면에 놓인 양상을 들추어낸다.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중국 도시화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작가의 비판과 함께 도시민이 도시의 물리적 조직과 어떻게 정서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작가의 시선을 함께 읽을 수 있다.

《작렬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작품의 구성형식이다. 작품은 자례 마을의 형성과 변화 발전에 대한 연대기적 서술, 곧 지방 역사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작품에서 자례 출신의 작가 엔렌커는 자례시의 시장으로부터 자

5) 박인성, <개혁기의 중국의 도시화 경험>, 《역사비평》, 2016. 5, 79쪽.

6)李玉杰, <面對偉大的“中國經驗”的另一種敘述 - 論閻連科的長篇新作《炸裂志》>, 《平頂山學院學報》第29卷 第1期, 2014年 2月, 83쪽.

례의 역사를 서술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자신의 신분이 소설가이고 소설의 미덕은 ‘동화(同化)되지 않음’에 있다고 판단한 그는 자기방식대로 역사서를 쓰겠다고 공언한다.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허구를 접목한 역사지는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황당하고 기괴한 내용을 담게 되고 작가 엔렌커는 영구 퇴출된다.

소설가가 쓰는 역사서라는 설정 아래 사실과 허구라는 전혀 다른 성격은 한 데 엮히고 그 경계 또한 모호해진다. 자례 마을의 구성원이자 관찰인의 시선으로 자신이 속했던 도시의 연대기를 구성해가는 방식은 역사가와 소설가의 구도도 허물어버린다. 《작렬지》는 그가 자례시로부터 공식적으로 의뢰를 받아 쓴 역사서이지만, 기존 역사서와 ‘동화되지 않는’ 부분, 곧 역사서에서 배제되어야 할 허구와 과장, 은유와 우언, 환상과 몽환의 수법이 담긴 문학작품으로도 기능한다.

엔렌커는 이와 같이 작중 화자와 실제 저자의 동일화를 통해 역사를 겨냥하고, 문학적 서사를 통해 말해지지 않은 역사의 이면을 확장,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신실주의(神實主義)<sup>7)</sup>를 동원한다. 그는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세계가 왜곡되고 변형되었으며 보이는 사실 이면에 가려진 진실은 표현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현과 상징의 ‘단순한’ 방법으로는 현실의 복잡성과 왜곡의 정도를 드러낼 수 없다고 말한다. 현실주의에 기반한 작품은 인물의 주조, 줄거리의 인과성, 경험과 논리, 감정의 합리성 등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7) 엔렌커가 ‘신실주의’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마술적 리얼리즘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마술’과 ‘리얼리즘’이라는 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단어로 이루어진 이 용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이성과 합리로 이해할 수 없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 본말은 전도되고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것들을 다룸으로써 ‘마술’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엔렌커는 이에 대해 마술적 리얼리즘을 비롯한 ‘황당파’가 인과율을 반 정도 고려한다면, 신실주의는 표면적인 합리성과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내재적인 합리성만을 고려한다면서 차별성을 강조한다. 곧 현실에 드러난 현상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아닌 그 내부에 숨겨진 관계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에 대해 말하는 작가의 반경은 넓힐 수 있으나, 현실에 기반하지 않고 작가의 상상에 많은 부분을 기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우려를 낳는다. 엔렌커는 평론가들이 자신의 기법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에 염증을 느껴 스스로 ‘신실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周景雷, 앞의 논문, 87쪽). 본고에서는 저자가 사용했던 황당하고 납득 불가능한 현실의 이면을 드러낸다는 방법의 의미를 새겨 ‘신실주의’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데, 실제 현실의 상황은 논리와 합리로 설명되거나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고안된 신실주의 안에서 현실은 논리와 인과율에 의해 구성되거나 파악되지 않는다. 상상, 과장, 황당, 허구 등을 덧입고 직조된 작품은 “가장 본질적이고 정신적이며 가장 영혼적인 진실”<sup>8)</sup>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현실을 재인식하고 재해석한다.

국내에 엔렌커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주로 《딩씨마을의 꿈》과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에 집중된다.<sup>9)</sup>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작품만큼 연구의 방향과 편폭도 많은 편이다. 최근에 지식인의 그로테스크한 행태를 다룬 《풍아송(風雅頌)》(2008)에 관한 논의<sup>10)</sup>가 진행되면서 연구의 반경이 넓혀졌다. 이와 같은 성과 속에서 《작렬지》는 아직 다뤄지지 않았다.

이 작품에 대한 중국 내 평가는 주제나 제재, 묘사 등 모든 면에서 ‘극단으로 치달아 균형 있는 서사에 실패했다’라는 의견<sup>11)</sup>으로 집중된다. 대부분의 평가는 농촌의 도시화 과정을 ‘남자는 도둑질하고 여자는 몸을 파는(男盜女娼)’ 과정으로 간략화한다고 비판한다.<sup>12)</sup> 이에 더해 신실주의가 표방하는 ‘내재적 인과율’의 모호함, 개혁개방시기 농촌의 도시화 전반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현하는 극단적 묘사와 걱정적 태도는 문학 자신만의 존재이유와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문학성’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평가<sup>13)</sup> 역시 비슷한 논조로 파악할 수

8) 周景雷, 앞의 논문, 88쪽.

9)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엔렌커’와 그의 작품명으로 검색해 보면, 모두 3편의 학위논문과 10편의 기간논문이 나온다.(검색일, 2020. 9. 4) 그 중 《딩씨마을의 꿈》을 다룬 논문이 4편,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를 논한 글이 4편으로 수적 우위를 점한다.

10) 전윤희, <엔렌커 소설 《풍아송(風雅頌) 연구》>, 《中國現代文學》 제94호, 2020. 7.

11) 吳祥軍, <現實的極端與失控的敘事-評閻連科長篇小說《炸裂志》>, 《揚子江評論》(2014年 第2期), 于莉, <歷史與敘述的寓言-讀閻連科《炸裂志》>(<文藝爭鳴》 4期) 등은 모두 이 작품이 대단히 평면적인 인물, 단조로운 서사, 역사지라는 체제 속에 걸맞지 않은 제목과 서술, 전작과 유사한 소재와 제재 그리고 구성들, 자기표절의 의혹, 걱정적 어조와 지나친 과장과 환상의 사용으로 현실에서 벗어나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

12) 대표적으로 楊劍龍, 王童, 陳衛瑾, <一部都市化批判的倉促之作 - 閻連科《炸裂志》三人談>(<海南師範大學學報》, 2014年 第1期 第27卷)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긴 편폭의 장편 속에서 인물의 성격은 변화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신실주의는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곧 극단적인 과장과 허구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13) 李玉杰, 앞의 논문, 87쪽.

있다.

본 글은 관방의 역사에 기재되지 못한 개혁개방의 이면을 《작렬지》를 통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작품은 역사지의 ‘비소설적’ 형식과 작중 화자와 실제 화자의 모호함, 그리고 신실주의가 넓혀놓은 현실과 허구의 반경 속에서 중국이 경험한 개혁개방의 보이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았(듯 보이)던 진실을 드러낸다. 특히 농촌의 도시화라는 ‘사건’은 아무런 기반도 없던 농촌이 국가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준다. 곧 관방의 역사에 기재된 거대한 숫자와 확장된 공간이 보여주는 도시화가 아닌 다른 모습의 경험은 개혁개방과 도시화의 이면을 들추어내며 ‘개혁개방 40년’을 지나온 중국의 지금을 반추하게 한다. 이를 통해 도시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속에서 누락되고 잊혀진 것은 무엇인지를 통해 도시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맥락을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

## 2. 국가가 주도한 도시화의 폐단

작품이 취한 지방지의 형식은 한 도시의 연대기적 서술을 의미한다. 작가의 면밀한 관찰이라는 전제 아래 한 도시의 흥망성쇠를 기록하지만, 변혁의 계기를 개혁개방으로 간주하면서 지방지는 역사서의 형태가 아닌 도시로 변모하는 자레 마을에 대한 보고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작품 속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역사가와 소설을 쓰는 작가가 이름과 신분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의심은 더욱 짙어진다. 곧 《작렬지》는 개혁개방에 대한 ‘문학적’ 해석이자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성 짙은 소설이 된다.<sup>14)</sup>

14) 엔렌커는 지금까지 소설을 쓰고 제목을 붙이면서 여러 번 수정을 했지만, 《작렬지》는 여타 소설과 다르게 시작하자마자 소설제목 붙인 작품이라는 말을 한 적(周景雷, 앞의 논문, 88쪽)이 있다. 소설을 써가면서 내용은 여러 번 바뀌고 그에 부합하는 제목 역시 고민하게 되는데, 《작렬지》는 작품을 구상하고 집필하는 동안 그러한 과정을 겪지 않았

개혁개방은 정치가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또한 중국이 문혁의 폐해를 극복하고 ‘4개 현대화’<sup>15)</sup>라는 명제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자원배분 및 외자도입, 점진적인 대외 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개혁개방을 하되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생산력을 증대하며 인민 삶의 제고를 추구하는 이른바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시작되면서 중국은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룩한다. “자본도 기술도 없고 경영 및 관리의 경험도 없으며 인구는 넘쳐나던”<sup>16)</sup>나라는 자본시장의 수용과 대외개방을 통해 농업 기반의 국가에서 경공업 국가로 변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구가 비농업인구로 전이되고, 이들을 수용하는 공간구조도 상응하게 바뀌는 도시화”<sup>17)</sup>가 나타났다. 경제특구의 지정과 경제개방지역이 확대되면서 도시로 집중된 노동력은 경제성장과 도시발전의 중핵이 되었다.

급속한 경제성장은 도시로의 인구유입을 발생시켰다. 경제특구 내 개발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안과 밖의 개발격차를 야기했고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도시는 공간적 확장을 추구하게 된다. 곧 주변 농촌 지역을 행정적 차원에서 도시 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sup>18)</sup> 도시 공간의 확장은 주변 기반시설이나 도시 기능의 확충을 수반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정책은 인구의 증가와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수용’의 측면만 강조되었고 급조된 제도 개혁은 도시의 기능과 가치를 면밀히 헤아리지 못했다. 도시에 밀집된 자본과 일자리는 권력이 되었고, 농촌보다 도시의 권위가 더 높고 같은 도시라도 인구 규모가 더 큰 도시일수록 일자리의 권위는 더 커졌다.

---

다고 언급한다. 이는 소설의 내용과 목적이 분명했고 작가가 이야기에 깊게 개입하여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 15)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지칭하며 1965년 당시 총리였던 저우언라이가 인민공사와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반성하며 제기한 정책이다. 1978년 덩샤오핑 집권 후, 이 내용은 개혁개방의 실질적 내용이자 근간이 되었다.
- 16) 윤종석,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 - 이중도시, 이민도시로서 선전의 도시발전>, 《역사비평》, 2016. 5, 47쪽.
- 17) 박인성, <개혁기 중국의 도시화 경험>, 《역사비평》, 2016. 5, 78쪽.
- 18) 윤종석, 앞의 글, 53쪽.

《작렬지》에서 담아놓은 개혁개방 이후 농촌의 도시화 과정 역시 이러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쿵(孔)씨와 주(朱)씨가 대부분인 집성촌의 성격을 띄었던 자례촌은 중화민국 성립 이후 토호적결과 토지분배 과정을 겪었고 인민공사 시기 자례 대대 소재지가 되어 공화국의 상황과 그대로 연결되었다. 문혁 시기 계급투쟁은 쿵씨와 주씨 사이의 파벌싸움의 양상으로 펼쳐져 개혁개방 이후 자례 마을의 도시화에 관한 주된 내용이 된다. 땅을 배분받아 농사를 짓고 시장에서 농작물의 매매가 이루어졌던 어느 시기, 자례촌을 도시화로 이끈 결정적 사건인 ‘만위안호(萬元戶)’<sup>19</sup>를 육성하라는 공문이 내려온다. 부자가 되라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된다. 소수를 먼저 부자로 만들어서 ‘낙수효과’를 얻고자 했던 정부의 정책에 사람들은 “전부 이성을 잃은 채” 자신이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을 드러낸다.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베서 부자가 되길 꿈꿀 때, 쿵둥더(孔東德)의 둘째 아들 쿵밍량(孔明亮)은 마을을 지나는 기차 화물칸에서 석탄과 코크스를 훔쳐 현성(縣城)에 내다 팔아 큰돈을 번다. 마을에서 가장 먼저 만위안호를 저축하여 모범사례가 된 그는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단지 ‘근면’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향장(鄉長)이 당시 촌장인 주칭팡(朱清邦)에게 올해 안에 마을에서 10가구를 ‘만위안호’로 만들 수 있는지를 물었을 때, 쿵밍량은 질문을 가로채 자신을 촌장으로 만들어주면 올해 안에 마을 가구의 절반을 ‘만위안호’로 만들 수 있다고 대답한다. 성과에 눈이 먼 향장은 자례의 개혁 원년을 선포하고 쿵밍량을 촌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윽고 마을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를 따라 도둑질을 한다. 개혁 원년 선포 후 1년여가 지나자 자례는 모두 ‘만위안호’가 되었고 정부의 정책을 가장 잘 따르는 모범 마을이 되어 정부 인사들의 눈에 들어온다. 이후 자례는 정부의 주도아래 주변 마을을 포섭하고 인구의 유입을 통해 도시 규모를 갖추고 더 큰 도시를 향해 질주한다.

19)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대 초, 연수입 1만 위안은 부자나 부유한 가정의 기준이 되었다. 당시 쌀값이 1kg에 약 0.28위안이었음을 감안한다면, 1만 위안의 가치는 짐작 가능하다. 《이코노미스트》 1365호, 2016. 12. 26.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14608>, 검색일, 2020. 7. 10.)



자례 마을의 선택에는 그 곳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부자가 되고픈 사람들의 욕망이 국가 정책의 비호 아래 발산된 것이다. 향장이나 성장(城長)은 국가 정책을 잘 실행하여 자신의 명성과 권력을 얻고자 했기에 자례 마을 사람들의 위법 행위를 눈감아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농작물을 팔아 돈을 버는 것보다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위법의 여부를 감안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석탄과 코르스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기차에서 ‘내리는 것’이라는 쿵밍량의 문법에 따랐다. 도둑질이라는 행위 속에 새겨진 ‘잘못된 행동’이라는 의미는 ‘내린다’라는 단순히 움직임만 나타내는 말로 삭제되었다. 기차에서 석탄을 ‘내린다’가 죽은 사람은 마을의 부를 위해 죽었다고 칭송하며 열사의 반열에 올리는 장면은 자례 마을이 이미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과 윤리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인민 삶의 제고’라는 목표를 위해 위법 행위가 정당화되고 윤리적 사고가 불가능한 상황은 개혁개방 전체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선의 바탕을 이룬다.

자례촌의 도시화를 이끈 두 축 가운데 하나가 도둑질이라면 다른 한 축은 성매매이다. 쿵밍량으로 대표되는 남자들이 도둑질로 ‘만위안호’가 되었을 때, 주잉(朱穎)을 위시한 여자들은 대도시로 나가 성매매로 돈을 번다. 주잉은 쿵밍량이 촌장이 되었을 때 마을을 떠났고 2년 뒤 엄청난 돈을 벌어서 자례로 돌아온다. 그녀는 벽돌집을 짓고 돈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편, 딸이 도시로 나가면 자신처럼 돈을 벌 수 있다며 노인들을 설득한다. 국가의 정책을 따른다는 신념과 부자가 되고픈 욕망이 결합되어진 위법 행위는 그에 대한 재사고나 반성 없이 속도를 더한다.

도시화를 향한 야심은 단지 촌장 쿵밍량 개인의 염원만은 아니다. ‘만위안호’를 통해 마을의 규모와 인구가 늘어났지만 자례를 지나가던 기차의 속도가 빨라져 더 이상 석탄을 훔칠 수 없게 된다.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근거’를 상실한 쿵밍량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당시 향장(鄉長) 후다권(胡大軍)은 자례를 비롯한 주변 마을 젊은이들을 동원해 도시의 기차역 부근에 내려주고는 무슨 일을 해서든지 돈을 벌어오라고 한다. 또한 반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도 말고

만약 이를 어긴다면 몇 천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종종 그들이 도둑질이나 몸을 팔다 걸리면 경찰서에 가서 돈을 주고 무마하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더 큰돈을 벌여오라 질책한다.

“젠장, 자네 사람들을 좀 배워라, 조잔하게 굴지 말고. 맨홀 뚜껑이나 강철 파이프가 얼마나 하겠니? 텔레비전은 하루가 다르게 값이 떨어져서 무나 배추만큼 싼데 훔칠 가치가 있나? 다들 꺼져. 시나 성도(省都), 광저우, 상하이, 베이징 같은 곳으로 가. 도둑질 정도는 처벌하지 않겠어. 하지만 2년 안에 마을에 작은 공장 몇 개는 세워야 해. 공장을 못 세우면 전부 잡아다가 가족까지 모조리 고깔모자 씌워서 소리들릴 줄 알아.”<sup>20)</sup>

“다들 가. 어서 가라고. 여섯 달 안에 너희 초가집을 커다란 기와집으로 만들 수 없으면, 흙기와집을 다층집으로 만들 수 없으면 그땐 진짜 창녀야. 진짜 기녀라고. 정말로 자레촌과 바리우 어른들을 욕보이는 거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와 조부모 볼 면목이 없는 거라고.”<sup>21)</sup>

후다권의 언설에서 보이는 공장, 기와집, 다층집은 농촌이 인식하는 개혁개방의 상징물처럼 보인다. 주요 생산수단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 그들의 생활공간과 거주구조 역시 바뀌는 일대 변혁의 과정이 이 단어들 속에 녹아있다. 개혁개방 초기 ‘불균등 거점발전’의 기조<sup>22)</sup> 아래 농촌에 나타난 개혁개방의 영향력은 개체의 생산력 복원과 시장의 형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농업 생산력이 공업 생산력에 비해 낮기 때문에<sup>23)</sup> 농촌에서 개체의 생산

20) 《작렬지》, 85쪽.

21) 《작렬지》, 87-88쪽.

22) “개혁기 중국 도시정책의 기조는 ‘불균등 거점발전’이었다. 즉, 도시체계를 통해 상위의 거점도시에서 하위체계의 도시로, 그리고 동부 연해지구에서 중서부 내륙지구로 개발효과를 분산시킨다는 것이었다.” 박인성, 앞의 논문, 85쪽.

23) 중국에서 농업생산의 경제성이 부족했던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1972년부터 미국, 일본 및 유럽 국가와 외교관계를 회복하면서 이들 국가에서 경공업과 석유화학공업 및 농업지원산업과 관련된 일련의 생산시설을 도입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부가 독점 생산한 화학비료와 농기계 등의 농업용 생산품을 농촌에 ‘일괄판매’함으로써, 농업생산 원가는 대폭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일괄 구매하는 농산품의 가격을 올리지 않음으로써 당시 단위 면적당 식량 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농촌은 계속 높은 부채를 안고 낮은 효율로 운영되었다. 윈테권 지음, 김진공 옮김, 《여덟 번의 위기》, 돌베개, 2016, 175쪽.

력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작품에서 보여준 도둑질과 성매매는 생산수단과 생활공간, 거주구조가 모두 바뀌는 일대 변혁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적응하고자 고안해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는 당위는 이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고, 부의 추구는 ‘공동체의 윤리’가 되어 수단과 방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였다. 쿵밍량과 후다쥘은 정책을 수행하는 ‘일꾼’이었지 정치지도자의 면면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개인적 이득에 치우쳐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고 훈련시킨 혐의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두 사람의 행위는 부자가 되고픈 마을 사람들의 욕망에 부합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 일로 인해 그들이 더 높은 권위와 권력을 가지게 됐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자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들은 가장 ‘속된’ 방식으로 고유해지고 특별해진다. 나아가 이들의 고유성이 중국 개혁개방, 도시화 계획의 전형이 된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 3. 공적 공간의 사적 전유

자례촌의 성장과정은 정치가 도시의 외부를 지탱하고 부자가 되고픈 욕망이 그 내부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쿵밍량의 ‘지도력’은 자례 마을 전체를 ‘만위안호’로 만들고 주변 마을을 통합하면서 점차 도시로서의 몸피를 부풀리게 했지만, 그에 합당한 도시의 내용들을 채우지 못했다. 《작렬지》는 농촌 마을이 도시가 되는 방법을 위법과 사적욕망으로 채워 넣으며 개혁개방 전체에 대한 비판적 의미를 돌출시킨다.

‘만위안호’ 정책 이후 더 많은 부의 축적은 자례 마을의 목적이 되었다. 부를 향한 질주는 유대감과 거리감을 동시에 만들어낸다. ‘부의 축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하고 있다는 유대감과 이 위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는 비교에서 오는 거리감이 뒤섞인다. 자례 마을 사람들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걸 함께 추구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특수한 처지에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사람이 쿵밍량과 주잉이다. 자례촌의 도시화는 이 둘의 은원관계로 채워지고 서로 간의 원한과 질투로 점철되어 있다. 쿵밍량이 가진 행정관리로서의 권력과 주잉이 가진 자본의 이합집산이 벌이는 욕망의 이전투구는 부자가 되라는 공적 시스템의 용인 속에 거침없이 질주한다.

사실, 작품 속에서 쿵밍량과 주잉의 은원관계는 자례의 도시화를 견인하는 동력이라 해도 무방하다. 이 둘의 관계는 역사가 깊다. 문혁시기 두 집안은 마을에서 파벌을 형성하여 각자의 세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당시 촌장이었던 주잉의 아버지 주칭팡은 새똥 모양의 중국 지도를 등에 달고 다닌다는 이유로 쿵둥더를 고발한다. 세상이 변해 '만위안호'의 성과로 신임 촌장이 된 쿵밍량은 아버지에게 주칭팡의 얼굴에 침을 뱉게 하고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원한을 갚는다. 주칭팡이 "가래침에 막혀 죽자" 딸 주잉은 마을을 떠났고 2년 뒤 엄청난 부자가 되어 마을로 돌아온다. 이윽고 주잉이 촌장 선거에 후보자로 나가면서 전세가 역전된다.

당연히 재선에 성공할 줄 알았던 쿵밍량의 생각과는 달리 마을 사람들은 주잉의 외모와 돈에 넘어가 그녀를 촌장으로 선출한다. 주잉은 자신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쿵밍량을 다시 촌장으로 만든다. 이때부터 자례촌은 쿵밍량과 주잉의 사적 공간으로 전락한다. 주잉의 "우리의 자례촌을 만들자"는 제안과 이에 응답하는 쿵밍량의 모습은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공적 공간인 자례를 전유하고 독식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방증한다. 밍량에게 자례촌은 돈을 벌고 권력을 확대하는 도구일 뿐이고, 주잉에게 그곳은 쿵씨 부자에게 받은 원한을 되갚기 위해 되돌아와야 했던 복수의 장소이다. 그녀가 촌장에 지원한 이유는 자신이 가진 돈을 과시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쿵밍량에게 '적수'가 생겼음을 인지시키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한 포석을 마련하려는 마음이 더 컸다.

마지막으로 주잉은 정색을 하고 막내 시동생에게 말했다.

“형수로서 하는 말인데, 대학을 졸업하면 자례로 돌아오지 마요. 나랑 둘째 형이랑 결혼한 이상 자례는 조만간 형과 내 손에 망할 거야.”<sup>24)</sup>

작품에서 주잉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복수이다. 소설은 이 과정을 주요한 줄거리로 삼는다. 쿵밍량을 복수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사실 그녀의 적대감은 자례촌 전체를 향해 있다. 아버지의 죽음을 설계하고 대리한 자는 쿵씨 부자이지만 실제로 실행한 자는 마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쿵밍량의 몰락은 그가 좌지우지하는 자례의 몰락이며 복수의 완성을 의미한다. 반면 쿵밍량은 자례가 점점 도시로 성장하면서 자신에게 더 집중되는 권력과 권위를 확인하며 독재자로 군림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기고야 말겠다는 두 남녀의 대결과 그 대결을 더 흥미롭게 보이도록 꾸미기 위한 인위적 규칙들, 그리고 그 규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끝도 없이 점층되는 자극적 디테일이 이 두 사람의 성격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멈출 줄 모르던 자례의 성장은 극단적 애국주의자인 셋째 쿵밍야오(孔明耀)가 형 쿵밍량을 살해하는 것으로 허무하게 끝난다. 그가 죽자 주잉은 자례를 떠나 자취를 감춘다. 쿵밍량의 죽음과 주잉의 행방불명으로 끝난 자례의 연대기는 이 도시가 이 두 사람의 전유물과 다름없었음을 증명한다.

자례촌이 도시가 돼가는 과정은 가치의 충돌이 아니라 욕망의 충돌로 집약된다. 자례촌의 도시화가 빨라질수록 인성의 변이, 윤리의 와해, 도덕의 침륜 또한 심각해진다. 작품은 서사의 강도를 전자에 집중하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깨뜨리고 권력과 성에 대한 서사를 옷자라게 만든다. 이는 신실주의라는 엔렌커 특유의 서술방법을 통해 특화된다. 자례가 촌에서 진으로 바뀌고 쿵밍량을 초대 진장으로 임명한다는 공문을 읽자, 죽어가던 식물들이 생기를 얻고 나무에 꽃이 핀다.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스파라거스에게 공문을 읽어줬다. 그러

24) 《작렬지》, 176쪽.

자 아스파라거스가 그의 눈앞에서 몽텅몽텅 파래지더니 열은 비취색을 뱉어냈다. 사무실 책상 끝에 놓인 활처럼 구부러진 감탕나무 분재로 다가가 공문서 두 부를 가지 위에서 펼럭이자 감탕나무 가지에서 천천히 조금씩, 작고 하얀 콩알 같은 꽃이 피어나 춘위원회의 세 칸짜리 춘장 사무실을 화원처럼 바꿔놓았다. (중략) 진으로 승격되었다는 공문을 치우고 그를 진장으로 임명한다는 문서를 소철의 마른 줄기에 걸자 초봄에 버드나무가 하룻밤 만에 연두색으로 뒤덮이듯 서서히 푸르러졌다.<sup>25)</sup>

작가가 주장하는 바, 신실주의는 합리적인 원인과 결과, 논리적인 전개가 아닌 내재적 인과율에 집중한다.<sup>26)</sup> 여기서 내재적 인과율이란 원인에 따른 이해 가능한 결과 혹은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원인이 일반적 논리를 벗어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사실이 어떠한 이유에서 연결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유’가 함축하는 내용이다. 임명장을 흔들자 마른 풀이 푸르게 변하게 된 장면 사이에 인과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임명장이 가진 권위와 임명된 쿵밍량이 가진 권력을 빗대는 장치로써 신실주의의 효과를 누린다. 진장을 시작으로 현장, 시장이 된 쿵밍량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형수는 아버지의 생명이 다했다는 것과 의사가 온다고 해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둘째 형의 사인이 있는 백지를 동그랗게 말아 아버지 입에 넣고는 울면서 “아버지, 아버지. 시동생 쿵밍량이 이제 진장이 아니라 현장이 되었어요! 현장이 되었다고요!”하고 외쳐 죽은 아버지를 되살려냈다. (중략) 추위가 절정일 때 냉기 때문에 머리로 피가 잘 공급되지 않아 아버지가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형수는 아버지 침대 앞에 꿇어앉아 그 사인된 종이를 들고 울면서 “시장이예요! 시장이 되었어요!”하고 외쳤다. 그러자 방안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언제 병에 걸렸냐는 듯 아버지가 정신을 차렸다.<sup>27)</sup>

형수가 다시 쿵가 사람이 되는 것과 다시 시장에게서 형수님 소리를 듣게 된 것을 축하했다. 그러고는 다시 쿵씨 집안으로 들어가고 시장님의 형수가 되니까

25) 《작렬지》, 191쪽.

26) 石劍峰, <閻連科談《炸裂志》>, 《東方早報》, 2013年 9月 29日.

27) 《작렬지》, 515쪽.

시장님이 진장님일 때 서명해준 백지를 쓸 일이 없을 거 아니냐며, 겨울이 춥고 건조한 데다 눈이 오지 않아 큰 가뭄이 예상되니, 종이에 ‘눈 내려라! 눈 내려라!’라고 적어 마을 경작지에 한바탕 눈을 내리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형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 머리맡에 놓인 상자에서 편지봉투를 꺼내 ‘눈 내려라! 눈 내려라!’라고 적었다. (중략) 모두 무릎을 꿇고 밉량의 사인이 있는 백지를 하늘로 치켜들고는 한목소리로 “눈 내려라, 눈 내려라!” 시장님이 눈 내리라고 하셨다! 하고 외쳤다. 또 “서설(瑞雪)은 풍년의 징조, 시장님이 눈을 내리라고 하셨다! 서설은 풍년의 징조이니, 시장님이 눈을 내리라고 하셨다!”하고 외쳤다. 그러자 하늘이 축축해지면서 눈송이가 날리기 시작했다.<sup>28)</sup>

이는 쿵밍량의 권위와 능력이기도 하지만, 현장, 시장이라는 직위가 가지는 무한한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가 시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소급해 가다 보면 그 끝에는 개혁개방이 놓여있다. 쿵밍량이 가진 능력은 개혁개방이 선사한 것이고 그가 개혁개방을 체화한 인물이라 했을 때, 그것은 신의 비칭처럼 여겨진다. 중국에서 개혁개방은 삶과 죽음, 자연을 주관할 만큼 위력적인 역사가 되었다. 이런 과장과 황당함은 신실주의의 주요 기법으로 작가는 문학이 현실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려고 한다.

신실주의의 기법을 통해 집요하게 드러내는 성 상납, 권력에 대한 과잉은 무엇인가를 담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인 것처럼 소재와 표현의 수위를 높인다. 하지만 여기엔 시종 이어지는 강력한 묘사에도 불구하고, ‘무엇’과 ‘왜’를 결여한 ‘어떻게’의 공허함이 있다. 또한 개혁개방이라는 시대적 필연과 개인적 원인에 붙들린 주잉의 집요한 응시엔 시대 성찰의 의미가 얹혀 있지 않고 언제나 자기혐오나 출처를 알기 어려운 쿵밍량을 향한 과잉된 증오 심만이 도드라진다. 신실주의 안에서 소재와 표현을 극점으로 끌고 가서 현실 이상의 현실과 진실 너머의 진실을 보여주겠다는 작가의 의도는 일견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작가는 현실을 자신의 생각과 의도대로 가공하지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윤리적 차원에서 생각해볼 문제이다. 때문에 작가가 말하는 존재하고 보이는 현실과 진실 그 ‘너머의 것’을 극점으로 끌고

28) 《작렬지》, 517쪽.

가 독자들의 감정적 호기심만을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 4. 도시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재사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당위는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한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집단은 분탕을 일으킬 수 있는 싹을 잘라 그 집단을 유지한다. 안정적인 집단 유지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악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작품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가 쿵둥더의 넷째 아들 쿵밍후이(孔明輝)는 이다. 사실 그는 악의 역할보다는 속도를 모르고 욕망을 발산하는 자레 마을에 제동을 거는 인물로 읽힌다. 《작렬지》의 등장인물 거의 모두가 성격의 변화 없이 충동과 욕망에 이끌린 모습만을 보여줄 때, 복잡다단한 심경을 보여주는 이 역시 쿵밍후이다. 그는 심약하지만 선량하고 고독하지만 자기반성을 할 줄 안다. 후에 그가 책력에 빠져 운명론자로 변모하는 상황은 일견 정신적 나약함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자레의 성장과 몰락을 반면교사 삼을 때, 쿵밍후이는 중요한 역할을 점한다. 돈과 욕망, 광기로 점철된 자레와 어울리지 않는 책력을 익히고 힘들 때마다 조상의 무덤에 올라가 우는 전통습속을 알고 있는 그는 개혁개방으로 인해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재고하게 만든다.<sup>29)</sup> 곧 개혁개방 자체가 본질

29) 작가는 개혁개방이 인성의 몰락, 윤리의 부재, 전통의 파괴를 가져왔고 배금주의가 팽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무덤에 가서 울어본 지 오래되었다는 쿵밍량과 쿵밍후이의 푸념은 돈과 욕망에 미쳐 반성과 재사고가 부재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부작용'이 개혁개방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작가는 역사지의 형식에서 문혁 시기를 계파투쟁이라는 단어로 간략화하고 쿵씨와 주씨간의 싸움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뿐, 이른바 '도덕진공'의 상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 사실 문혁이 배태한 폐해는 중국 사회 전반의 퇴보이지만 특히나 전통과 윤리의 파괴로 인한 무질서와 무사회의 상황은 돌이키기 어려운 과오로 여겨진다. 무덤에 가서 우는



이라면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질문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더 나아가 도시를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도 숙고하게 한다. 자기반성과 자기부정이 부재된 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전의 풍경뿐만 아니라 전통적 관습과 제도, 인간관계를 파괴했던 급진적 변화의 결과가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지금의 자레 직할시이기 때문이다. 《작렬지》는 자레가 도시화되는 과정을 쿵밍량과 주잉의 은원관계로 축소시킨다. 공적 공간인 도시를 사적으로 전유하면서 도시를 자신과 동일시했던 쿵밍량과 주잉은 개혁개방을 조망하는 작가의 시선과도 겹친다. 곧 반성도 없고 속도도 제어할 수 없는 욕망의 질주가 끝나면 무엇이 남는가라는 질문이다.

유치원의 담장이며, 벽, 옥상까지 전부 덴마크의 작은 성처럼 경쾌한 색깔과 그림으로 가득했다. 그 작은 성을 지날 때 밉후이는 건물 위의 비둘기까지도 전부 컬러풀하게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칠해진 것을 발견했다. 진짜 비둘기도 가짜 같았다. 가짜도 진짜 같았다. 하지만 그런 진짜와 가짜들에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기이하다거나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sup>30)</sup>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없고 옳고 그름이 판명되지 않는 혼란의 시대, 힘들 때마다 조상의 무덤에 올라가 우는 습속은 잊혀진 지 오래 되었고 밉량은 아버지의 죽음마저 현상이 되기 위한 자신의 ‘공적’인 일에 이용한다. 유흥업소는 빠르게 증가했고 도시 호구를 얻기 위해 뇌물과 편법이 횡행한다. 공장을 짓기 위해 잘려나간 땅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자레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농지를 잃은 노인들이 시위를 하지만 향후 시체를 묻을 땅이 부족해져 화장제가 시행되더라도 당신들은 매장해주도록 하겠다는 말에 설득 당한다.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여론몰이를 위한 ‘뉴스 가공공장’도 우후죽순 생겨난다. 공장에서 폐수를 씹 없이 뱉어내지만 사람들은 그 악취에 이내 익숙해

습속이 자레 마을 사람들이 지켜왔던 고유의 전통이고, 이것이 파괴되어 지켜지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개혁개방 이전 시기로 소급되어야 할 것이다.

30) 《작렬지》, 489쪽.

진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고 모두 익숙하게 살아가는데 이곳에서 예외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작품 속 민후이의 역할에 견준다 해도 그 역시 이 속에 뒤섞여 살아갔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흔적이 그의 몸과 마음에 서려있을 수밖에 없다. 삶의 공간이 변하면 개인의 삶에도 변화가 생긴다. 농촌이 도시화되면서 개인 삶의 태도와 양식, 가치에도 엄청난 변화가 따라온다. 자례의 변화는 그곳을 살아가는 개인의 변화와 연동된다. 이 두 사이, 곧 도시와 도시민이 맺는 관계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문학적 상상력에 기대 가능한 《작렬지》 속 개혁개방의 모습은 도시를 이루는 요소와 가치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된다.

작품 속에서 자례의 도시화는 자본의 축적 과정에 따른 도시공간의 재편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의 환경과 공적 경관은 새로운 건설과 공간 조성을 위한 창조적 파괴로 사라졌고, 새로운 도시 경관은 자본과 권력의 상징적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으로 변모하였다. 개혁개방으로 인해 민간자본이 들어오고 이를 통해 자본의 확대 재생산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공적 공간은 파괴되고 공유재들은 사유화되었다. 도시공간의 형성과 재편을 통해 생겨나는 도시의 잉여가치는 자례 마을 사람들의 노동에 의해 발생되고 누적된 것으로 이들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지만, 모두 쿵밍량에게 일임된다. 자례의 역사성이나 장소, 맥락 등은 대형 도시를 구성하는 자본 축적의 논리에 의해 유린당하고 자연의 경관과 인간의 육체마저 상품화함으로써 파괴적인 형태로 나간다.

도시는 수직적 축과 수평적인 축으로 직조되는데, 수직성은 자본축적이 도시 건설을 지배하기 시작한 뒤부터 도시의 지배적인 시각적 특징을 이룬다. 수평적으로는 도시 개별 간, 혹은 농촌과 도시간의 구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sup>31)</sup> 자례는 도시 규모를 확장할수록 마천루를 더 많이 더 높게 짓고 주변 도시를 통합하면서 자본의 외연을 확장한다.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재투자는 대부분 쿵밍량에게 귀속되고 그가 독점한다. 자본 축적의 원천

31) 강내희, <도시에 대한 권리와 시적 정의>, 《위기의 도시, 희망의 도시 심포지엄 자료집》, 2016, 48-49쪽.

으로서의 도시화와 멈추지 않는 수평적 확장 그리고 잉여가치의 독점은 자례를 위기에 빠트리고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sup>32)</sup> 또한 심화된다.

도시의 의미는 다층적 관계에서 발생하기에 고정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폭넓은 의미에서 “인구, 건물, 교통 등과 관련된 밀도와 삶의 속도,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의 범위 등과 관련된 강도를 특징으로 하고, ‘타자와의 만남의 장소’로서 이질성이 일으키는 흥분, 짜증, 또는 근심을 포함하는 모든 감정을 내포하고 있는”<sup>33)</sup> 공간으로 새길 수 있다. 도시의 여러 가지 물리적 조건과 이에 대한 도시민들의 경험, 감정, 생활 그리고 다양한 인간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면서 하나의 도시는 비로소 완성된다. 도시 구성원 각각은 분명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으며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운명을 지닌다. 곧 도시가 바뀌면 도시민의 삶도 바뀐다. 도시 정책이 바뀌면 도시민의 삶에도 영향이 미친다. 때문에 도시는 간명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법이 없다. 거의 언제나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상충하는 설명을 동시에 요구한다. 도시민 전체는 하나의 변수가 아닌 개별적 독립 변수이고 저마다 고유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도시라는 물리적 조직과 관계를 맺고 유기적으로 결합하기<sup>34)</sup> 때문이다.

작품이 도시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경험들은 ‘도시민 전체’라고 몽땅 그려버리고 쿵밍량(혹은 쿵씨 일가)과 주잉의 갈등과 충돌에 거의 모든 부분을 할애한 이유는 도시를 독점하고 소수에게 집중되는 권력과 자본을 돌출시키기 위한 서사적 전략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도시의 의미를 규정하는 상호작용과 자유로운 근접성, 혹은 만남의 장소, 집단적 토론과 의사결정의 공간 등의 조건은 이곳에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를 개인의 원한관계에 의한 전투장으로 여기고 잉여에 대한 권리를 개인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자례는 공멸의 길로 간다.

32) 작품에서 위와 같은 조건에서 생성되는 갈등과 충돌은 주로 쿵씨 형제 사이, 혹은 쿵씨와 주잉 간의 그것으로 간략화된다. 이는 자례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사적 전유물로 여겼던 쿵씨 일가의 폐단을 지적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3) 질 뵈런타인 지음, 박경환 옮김,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한울아카데미, 2014, 256쪽.

34) 송원섭, <도시는 물리적 관계로만 이루어지는가?>, 《문화일보》, 2019년 12월 3일.

도시의 물리적 조건과 그에 대한 감정의 유기적 결합, 조건의 가변성이 야기하는 삶의 변화 등은 도시가 제공하는 기회이자 권리이다. 이것은 자본의 축적과 잉여가치를 독점하고 있는 몇몇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도시로부터 배제되고 주변화된 사람들이 도시를 자신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도시와 도시민이 상호연결되어 있다면 도시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창출하고 자신의 역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 곧 도시를 보고 상상하고 만들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도시가 요구된다. 개혁개방 40년, 중국이 지향하는 신형도시화계획 속에 등장하는 도시의 모습과 역할 역시 이와 비슷하다. 물리적 공간의 확장을 지양하고 거주민의 생활 제고와 가치에 집중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 역시 도시가 개별적 도시민과 그들의 감정, 경험 등의 정서적 결합에 의해 직조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실천을 예리하게 바라봐야 할 때이다.

## 5. 나오는 글

《작렬지》는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존재해왔던 것을 빠르게 부숴나가고 있는 현대 중국의 변화를 연대기적 방식으로 응시한다. 엔렌커는 보이는 것과 그 뒤에 숨은 것, 혹은 고의로 은폐된 것에 관심을 가진다. 그 과정에서 복잡한 전사(前史)를 간략화하고 개혁개방 이후 변모되는 자레촌의 당대사에 집중한다. 개혁개방은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실험인 동시에 체제 전환에 따르는 사회 전반의 체제를 바꾸는 일이었다. 그것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인간관계도 재조정되는 대변혁을 의미한다. 역사지가 가지는 '무미건조한' 시각이나 중립성을 포기하면서, 《작렬지》는 역사를 엮어내는 구조를 소설화하여 극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도시의 기원서사를 새롭게 재구성한다. 주제와 이야기와 형식이

결합을 이뤘던 전작들에 비해 이 소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투박해 보인다. 그러나 반성 없고 부도덕한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을 보여주는 이 소설의 이야기는 곱씹을만하다. 개혁개방에 따른 제어되지 않는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스며있다는 점에서 《작렬지》는 《당씨 마을의 꿈》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이 취한 역사지의 형식은 한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어떤 집단의 기억과 체험을 담고 있기에 소설을 이루는 요소들은 지나치게 선명하고 견고한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 역사지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허구가 접목되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소설이 취한 역사지의 방식은 집단의 공식 기억과 체험으로 공인받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작품의 말미 차례 시장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며 《작렬지》를 폐기한다. 그러나 이것은 작가의 의도대로 '보이지 않는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에 예상가능한 일이다. 은폐된 진실을 가시화시킬 수 있었던 신실주의는 일견 황당무계하고 과장되어 보이지만, 현실을 따라잡을 수 없는 문학의 한계를 절감한 작가적 고민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내적 필연성과 납득할 만한 효과를 거둔다.

시간이라는 변인은 차례의 물리적 공간을 확장시켰다. 시간의 흐름은 필연적으로 변화를 배태한다.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정서의 상당 부분은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차례는 특정한 공간이 겪어온 개혁개방의 역사와 그 속에서 파생되는 실제적인(혹은 과장된) 감정을 체화한다. 차례라는 공간에 담아낸 시간의 이야기는 시스템의 변화가 야기하는 인간의 감정, 생활, 경험의 변화와 연동된다. 도둑질하다가 죽은 아들은 차례의 발전을 위해 희생한 열사로 추종되고 자본과 결합한 권력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다. 돈을 좇지 않는 명후이는 병자 취급을 받으며, '더 이상 농촌이 아닌' 차례에서 감당할 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무덤에 가 우는 풍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변화와 부채에 대해 작가는 어떤 회복이나 화해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순간 공멸하는 순간을 그려낸다. 그 희박한 가능성마저 삭제해버린 작가의 경고는 날이 서 있다.

작품의 전체적인 윤곽과 맥락은 윤리강상의 퇴보, 전통의 소실, 인성의 파

괴가 개혁개방부터 시작되었다는 지점으로 향한다. 작가는 ‘志’라는 형식 속에서 상대적으로 문혁시기를 간략화하고 위와 같은 폐단의 시작점을 개혁개방으로 설정하여 강도 높게 비판한다. 작가의 이러한 시도는 물론 그 자체로 의미 있지만, 그 시도의 근거와 필연성이 독자들에게 충분히 납득되어야 한다. 역사지와 신실주의라는 난해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가볍지 않은 울림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이 시도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절실함과 필연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실함과 자기근거는 개혁개방으로 야기된 도시화의 비판이라는 지점으로 모이기 위해 소설의 모든 부분을 동원한 의심으로 귀결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낸다.

#### < 參考文獻 >

- 閻連科, 《炸裂志》, 上海文藝出版社, 2013.
- 李玉杰, <面對偉大的“中國經驗”的另一種敘述 - 論閻連科的長篇新作《炸裂志》>, 《平頂山學院學報》第29卷 第1期, 2014年 2月.
- 王堯, <作為世界觀和方法論的“神實主義” - 《發現小說》與閻連科的小說創作>, 《當代作家評論》, 2013年 第6期.
- 吳祥軍, <現實的極端與失控的敘事 - 評閻連科長篇小說《炸裂志》>, 《揚子江評論》, 2014年 第2期.
- 楊劍龍, 王童, 陳衛瑾, <一部都市化批判的倉促之作 - 閻連科《炸裂志》三人談>, 《海南師範大學學報》, 2014年 第1期 第27卷.
- 于莉, <歷史與敘述的寓言 - 讀閻連科《炸裂志》>, 《文藝爭鳴》4期.
- 周景雷, <寫作就是對現實的回應-閻連科訪談錄>, 《文藝研究》2014年 第2期.
- 리처드 세넷 지음, 김병화 옮김, 《짓기와 거주하기》, 김영사, 2020.
- 미즈우치 도시오 편, 심정보 역, 《공간의 정치지리》, 푸른길, 2010.
- 박인성, 《중국의 도시화와 발전축》, 한울, 2009.
- 박인성 외, 《도시로 읽는 현대중국 2》, 역사비평사, 2017.
- 엔렌커 지음, 김태성 옮김, 《작렬지》, 자음과 모음, 2016.
- 원테권 지음, 김진공 옮김, 《여덟 번의 위기》, 돌베개, 2016.

- 임동근, 김종배 지음,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반비, 2015.
- 질 벨런타인 지음, 박경환 옮김,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한울아카데미, 2014.
- 박인성, <개혁기 중국의 도시화 경험>, 《역사비평》, 2016. 5.
- 박윤철, <개혁개방 후 중국 사회변천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연구>, 《중국학논총》 제9호, 2000.
- 박철현, <개혁기 위계적 시민권과 중국식 도시사회의 부상>, 《역사비평》, 2016. 5.
- 윤종석,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 - 이중도시, 이민도시로서 선전의 도시발전>, 《역사비평》, 2016. 5.
- 신현방, <중국 개혁기 자본의 도시, 강탈의 도시로의 이행>, 《역사비평》, 2016. 8.
- 최관장,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이론기초와 그 전개과정>, 《중국학연구》 제21호, 2001.

< Abstract >

A Symptomatic Narrative of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A Study on *explosion chronicles*

Kim, Bongyeon

This article seeks to find out the reverse side of reform and opening that has not been recorded in the history of the government office through *explosion chronicles*. In the non-fiction form of historical magazines, the ambiguity of the narrator and the actual speaker, and the radius of reality and fiction widened by mythorealism, works reveal the truth that China experienced, which did not seem to exist. In particular, the incident of urbanization in rural areas shows how the rural areas, which had no foundation, were forced to respond to the call of the state. The experience of something other than urbanization, which soon shows the vast numbers and physical spaces in the history of the

government office, reveals the reverse side of reform and opening up, reflecting on the present of China, which has passed 40 years of reform and opening up. Through this, we can point out a new context for the function and value of cities through how urbanization was done and what was missing and forgotten in it.

The overall outline and context of the work is directed to the point where the deterioration of ethics, the loss of tradition, and the destruction of character began from the reform and opening up. In the form of historical journals, the author makes a relatively brief summary of the period of civilization and sets the starting point of various abolition as reform and opening, and strongly criticizes it. This attempt by the author is of course meaningful in itself, but the rationale and inevitability of the attempt must be fully understood by the reader. Despite the esoteric composition of historical journals and Mythorealism, the novel was able to give a light echo because of the urgency and inevitability of revealing the invisible truth behind the attempt. But this desperation and self-assertion reveal its limitations as it boils down to doubts that have mobilized all parts of the novel to bring it to the point of criticism of urbanization caused by reform and opening up.

Key words: Explosion chronicles, Mythorealism, Reform and opening-up, urbanization, appropriation, right to the City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07. 31	2020. 08. 11 -08. 28	2020. 08. 17	2020. 09. 06	2020. 09. 30